

SPACE

566
201501

Feature

**A NEW BLUEPRINT OF SEOUL,
OR YET ANOTHER PROPAGANDA ATTEMPT?**

Frame

**AN ARCHITECT'S IMMERSION IN PARADOXES
AND BOUNDARIES: KIM SEUNGHOY**

空間

가공되지 않은 재료의 힘: <데이비드 내쉬> The Power of Raw Materials: 'David Nash'

©Keith Park



David Nash, Installation View K2 1st Floor, 2014

영국의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의 두 번째 국내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그의 조각과 드로잉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 전시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미공개 작품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나무의 수명 주기는 인간의 수명 주기를 닮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하며, 계절을 지나며 깨어 있거나 잠을 잔다. 나무는 자신의 형태를 통해 시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는 나무의 생명이 인간의 그것과 같다는 철학으로, 환경문제나 질병으로 쓰러진 나무만을 재료로 사용해 자연에 대한 윤리적인 태도를 가진다. 야생의 거친 표면을 그대로 활용한 서정적인 조각은 작가가 선택한 재료와 조화를 이룬다.

또한 재료의 본래 성질에 따른 자연스러운 형태의 작품이 전시의 주를 이룬다. 작가는 재료 본연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작업 방식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그가 나무를 바라보는 생태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무를 향한 작가의 열정은 따뜻하면서도 힘 있는 그의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번 전시에선 나무 외에도 브론즈를 이용한 신작과 종이 작업도 볼 수 있다. 재료의 독특하고 대담한 표면 처리 방식은 그의 조각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다. 나무의 표면을 그을리기 위해 불을 사용하는 작가는

형태에 따라 표면처리 방법을 바꾸며 인위적이지만 자연스러운 작품을 만든다. 특히 나무 표면 위에 브론즈 주조 기법을 사용한 신작은 자연과 시간에 견딜 수 있는 '나무의 진화'를 시도한다.

작가의 열정과 가공되지 않은 재료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국제갤러리 K2 전시장에서 1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자료제공 국제갤러리>

British sculptor David Nash's second Korean exhibition is held in the Kukje gallery. This exhibition is included his sculptures and drawings. It will also include exclusive pieces that Nash has saved for the Korean exhibition.

'Trees have a life cycle resembling our own. They grow and breathe, all through the day and night, and are awake and asleep in turn throughout the seasons. Trees show their time-story through their form'.

He has a philosophy that the life of a tree is same as the life of a human, and uses trees fallen victim to environmental problems or disease. The lyrical sculpture, which uses the raw rough surface shows harmony with the material.

The exhibition mainly shows pieces inspired by natural forms, following the nature of the material. The artist chose a method that would preserve the original form as much as possible. We can see his ecological point of view directed towards the trees. His passion for trees is transmitted to the audience through his warm yet strong works. One can see the new pieces using bronze and paper. The unique and bold surface treatment is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ash's sculptures. He uses fire to blacken the wood's surface, using different methods for different forms, creating artificial yet natural pieces. The new body of work using bronze casting over the wood surfaces is an attempt to achieve 'evolution of the tree', which can withstand time and nature. This exhibition, where one can see the passion of the artist and the power of the raw material, will take place at the Kukje gallery K2 hall until Jan. 25. <materials provided by Kukje Gallery>